

## 한방병원 소아과를 내원한 소아 아토피피부염 환자 실태에 관한 조사

조민서 · 한재경 · 김윤희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 Abstract

### The Use of Oriental Medicine for Pediatric Outpatients with Atopic Dermatitis

Jo Min Seo · Han Jae Kyung · Kim Yun Hee

Department of Pediatr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 Objectives

This study i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use of oriental medicine on pediatric outpatients with atopic dermatitis(AD).

#### Methods

The study was carried out with 267 AD outpatients who visited the Department of Pediatrics, Oriental Medical Hospital from January 2010 to May 2011 and was completed by reviewing patients' chart.

#### Results

The relative frequency of AD on the oriental pediatrics hospital was 6.8%. In a sexual distribution, the male children were more frequent than the females. In an age distribution, atopic dermatitis children visited the hospital were the most frequent in the age from 3 to 10. The highest frequency that started the oriental therapy after the outbreak of AD was from 1 month to 1 year. Approximately, 49.4% of the children who visited hospital relied on western medicine in treating their atopic dermatitis. The therapeutic effect of the oriental medicine was found to be excellent in 47.9%, no change was seen in 16.9%, and aggravation was seen in 3.4% of the patients. Less than a month of oriental treatment was the most common. The improvement depending on the length of the treatment was found to be 91.8% in more than 3 months, and 21.8% in less than 1 month. The use of the herbal medicine and herbal external treatment was seen in 67.4% and the therapeutic effect was improved in 63.3% of the patients.

#### Conclusions

Considering the results, we can improve accommodation of oriental therapies for the pediatric outpatients with atopic dermatitis, and enhance the doctor-patient relationship to help the children with atopic dermatitis.

**Key words** : Atopy dermatitis, Pediatric outpatients, Oriental medicine

## I. 緒 論

아토피피부염은 유·소아기에 시작하여 성인기까지 재발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 습진성 피부 질환이다. 단기적인 치료만으로 완치되기 어려운 질환이며 호전되더라도 다른 질환으로의 알레르기 행진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sup>1)</sup>.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여러 치료 방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아토피피부염과 함께 여러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추세로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교 이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받은 경우가 1995년 16.6%에 비해 2000년 24.9%로 증가되고 있다<sup>2)</sup>. 이는 질병의 만성화와 재발, 인구 구조의 변화, 많은 항원 노출, 악화요인의 증가 및 질병 자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증가로 추측된다. 특히 소아에서의 발병률은 성인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sup>3)</sup>.

또한 아토피피부염을 가진 환자는 정신, 사회, 신체적 스트레스를 적지 않게 받게 되고 환자를 돌보는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보호자들은 서양의학, 한의학과 민간요법 등의 여러 치료를 전전하게 된다. 아토피피부염 치료에 대하여 서양의학 치료가 한계를 보임에 따라 한의학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한방병원 소아과를 내원하는 아토피피부염 외래 환자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저자는 아토피피부염 소아 환자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나 보호자의 순응도를 높이고 환자-의사간의 효과적 의사소통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자 2010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본원 소아과 외래를 내원한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아토피피부염 병력 시기, 한방 요법 총 치료기간, 한방 치료 방법에 따른 호전 여부, 투여된 처방의 종류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 II. 研究對象 및 方法

### 1. 對象

2010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 한의대학교 부속 ○○ 한방병원 소아과를 내원한 0세부터 20세 미만의 소아 청소년 외래 환자 중 아토피피부염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 2. 方法

외래 의무기록지에 기록된 자료를 토대로 환자의 연령, 성별 및 아토피피부염 발병 후 내원하기까지 병력 기간, 양방 치료의 경험, 한방 요법의 총 치료 기간과 호전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검토 분석 하였다.

- 1) 한방 소아과 외래 환자 중 아토피피부염 증세로 내원한 환자의 분포
- 2) 성별 및 연령별 분포
- 3) 아토피피부염 발병 후 내원하기까지 병력 기간
- 4) 내원환자의 양방 치료 경험
- 5) 한방 요법의 총 치료 기간과 치료 후 호전 여부
- 6) 한방 치료 방법에 따른 분류와 호전 여부
- 7) 투여된 처방의 종류

## III. 結 果

### 1. 성별 및 연령별 분포

한방병원 소아과를 내원한 총 외래환자 수는 3925명으로 이는 중복으로 내원한 환자를 제외한 수이다. 이 중 아토피피부염 질환을 호소하는 소아 환자는 267명으로 전체 외래환자 중 6.8%를 차지하였다. 아토피피부염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Atopic Dermatitis Patients(Total Number, Sex, Age, and Major Disease)

		No	Percent(%)
Total outpatients		3925	100
Atopic dermatitis patients		267	6.8
Sex	Male	151	56.6
	Female	116	43.4
Age	0~2yr	88	33.0
	3~10yr	150	56.2
	11~19yr	29	10.8
Disease	Major	161	60.3
	Minor	106	39.7

Table 2. Past Year Distribution after Atopic Dermatitis Onset

Past Year	No	Percent(%)
<1 month	30	11.3
1 month ~ 1 year	89	33.3
1 year ≤	69	25.8
etc.	79	29.6

Table 3. Western Medical Treatment

Western medical treatment	No	Percent(%)
Treatment	132	49.4
Non-treatment	70	26.2
etc.	65	24.4

Table 4. Total Period of the Oriental Medical Treatment and Improvement according to the Duration of Treatment

		No(%)	Improved(%)
Duration of the oriental treatment	<1 month	119(44.6%)	26(21.8%)
	1 month ~ 3 months	78(29.2%)	57(73.1%)
	3 months ≤	49(18.4%)	45(91.8%)
	etc.	21(7.8%)	0(0%)

Table 5. Therapeutic Effect of the Oriental Medical Treatment

		No	Percent(%)
Therapeutic effect	Improved	128	47.9
	No change	45	16.9
	Aggravation	9	3.4
	etc.	85	31.8

환아 중 남아는 151명(56.6%), 여아는 116명(43.4%)으로 남아가 약간 많았다. 연령에 따른 분석에서는 소아(3~10세)가 150명(56.2%)으로 가장 많았고 유아(0~2세)가 88명(33.0%)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사춘기 환아(11~19세)가 29명(10.8%)으로 가장 적었다. 아토피피부염을 주증상으로 호소한 환아는 161명(60.3%)이었으며 타질 환에 대한 부증상으로 아토피피부염을 호소한 환아는 106명(39.7%)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아토피피부염 발병 후 내원하기까지 병력 기간과 양방 치료 경험에 대한 분포**

병력 기간에 대한 분석에서는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 89명(33.3%)으로 가장 많았으며, 1년 이상이 69명(25.8%), 그리고 1개월 미만이 가장 적은 30명(11.3%)로 나타났다. 기타로는 증상이 경미하여 환아와 보호자가 정확한 병력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79명으로 29.6%를 차지하였다(Table 2).

양방 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받아본 적이 있는 경우가 132명(49.4%)으로 가장 많았으며 양방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70명(26.2%)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래 의무 기록지에 양방 치료 경험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않은 경우가 65명(24.4%)으로 나타났다(Table 3).

**3. 한방 요법 총 치료기간과 호전 여부**

한방 요법의 총 치료 기간에 대한 조사에서는 1개월 미만이 119명(44.6%)으로 가장 많았고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미만이 78명(29.2%)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3개월 이상은 49명(18.4%)으로 나타났다. 그 외 1회만 내원한 환자는 21명(7.8%)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Table 4).

한방 치료를 행한 후 호전 여부는 호전이 128명(47.9%), 별무 변화가 45명(16.9%), 그리고 악화가 9명(3.4%)으로 나타났다. 기타로는 1회만 내원한 경우나 초기 증상이 경미하여 호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합하여 총 85명(31.8%)으로 나타났다(Table 5).

한방 치료 기간에 따른 호전 여부를 살펴보면 1개월 미만으로 치료한 경우가 총 119명 중 26명(21.8%)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으로 치료한 경우는 78명 중 57명(73.1%)이 호전되었으며 3개월 이상 치료한 경우는 49명 중 45명(91.8%)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6. Method of the Oriental Medical Treatment and Improvement according to the Method

Treatment method	No(%)		Improved (%)	
	H-med <sup>+</sup> +H-external treatment <sup>+</sup>	180(67.4%)	114(63.3%)	
	H-external treatment	72(27.0%)	13(18.1%)	
	None	15(5.6%)	1(6.7%)	

H-med<sup>+</sup>: Herbal medicineH-external treatment<sup>+</sup>: Herbal external treatment

Table 7. Improvement according to Major and Minor Atopic Dermatitis

Atopic dermatitis	No(%)		Improved (%)	
	Major	161(60.3%)	99(61.5%)	
	Minor	106(39.7%)	29(27.4%)	

Table 8. Herbal Medicine Uptaking on Atopic Dermatitis

Herbal medicine	No	Percent(%)
Chungsimyeunjangtang	123	55.7
Sunbangpaedokrang	28	12.7
Yangwytang	15	6.8
Bohantanggami	15	6.8
Dangieumja	10	4.5
Yukmijihwangtanggami	7	3.2
Chunggisan	6	2.7
Yangsintang	4	1.8
Samultanggami	4	1.8
etc.	9	4.1

#### 4. 한방 치료 방법과 호전 여부

한약과 함께 외용제와 입욕제를 처방받아 치료한 경우가 180명(67.4%)이었으며 한약 없이 외용제나 입욕제만 치료한 경우가 72명(27.0%)으로 나타났고 아토피 증상이 경미하여 상담을 통해 생활 개선 등을 처방받은 경우가 15명(5.6%)으로 나타났다.

치료 방법에 따른 호전 여부를 분석하면 한약과 함께 외용제와 입욕제로 치료한 경우 180명 중 114명(63.3%)이 호전되었다. 한약 없이 외용제나 입욕제로만 치료한 경우 72명 중 13명(18.1%)이 호전되었고 아무런 처방을 받지 않고 생활 개선만 시행한 경우 15명 중 1명(6.7%)이 증상의 호전을 보였다(Table 6).

#### 5. 아토피피부염이 주증상인 경우와 부증상인 경우의 호전도

증상의 정도에 따른 호전도를 살펴보면 아토피피부염을 주증상으로 호소하는 경우 외래 환자 161명 중 99명(61.5%)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타질환에 대한 부증상으로 아토피피부염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106명의 환자 중 29명(27.4%)이 증상의 호전을 보였다(Table 7).

#### 6. 복용한 한약

복용한 한약의 종류에 대한 조사는 중복으로 처방받은 한약을 모두 포함하였는데 결과를 살펴보면 청심연자탕이 123명(55.7%)으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 선방패독탕이 28명(12.7%)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는 보아탕가미와 양위탕이 각각 15명(6.8%)으로 나타났으며 차례로 당귀음자 10명(4.5%), 육미지황탕가미 7명(3.2%), 청기산 6명(2.7%), 양신탕 4명(1.8%), 사물탕가미 4명(1.8%)으로 나타났다. 그 외 갈근해기탕, 쌍화탕, 삼령백출산, 열다한소탕, 가미소요산 등이 각각 1명씩으로 나타났다(Table 8).

## IV. 考 察

아토피피부염은 유·소아기에 시작하여 성인기까지 재발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 습진성 피부 질환으로 증상의 조절은 가능하나 완치가 힘든 질환이다. 또한 장기간의 치료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부신 피질호르몬제 같은 약의 부작용, 인터넷을 비롯한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점차 한방 치료에 대한 관

심이 높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방병원 소아과를 내원한 총 3925명의 외래 환자 중 267명의 환아가 아토피피부염을 호소하는 소아 환자로 6.8%를 차지했다. 박<sup>4)</sup> 등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아토피피부염이 피부과 외래 환자의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성별 분포에서는 남아가 56.6%, 여아가 43.4%로 남아의 비율이 약간 높았다. 김<sup>5)</sup>의 논문에서도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성별이 남아가 51%, 여아가 49%로 남아가 더 많았다. 유사하게 권<sup>6)</sup> 등의 연구에서도 한방병원 소아과 외래 환자 20명 중 남아가 55%, 여아가 45%로 남아가 약간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오<sup>3)</sup> 등의 연구에 따르면 아토피 유병률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분포에서는 3~10세의 소아기 환자가 56.2%로 가장 많았고 0~2세의 유아기가 33.0%로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11~19세의 사춘기가 10.8%로 가장 적었다. 한방병원 소아과 외래를 내원한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한 권<sup>6)</sup> 등의 연구에서는 3~5세가 25%, 5~10세가 40%, 10~20세가 20%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양방병원을 내원한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박<sup>4)</sup> 등의 연구에서 아토피피부염 외래 환자 205명 중 연령에 따른 상대 빈도에서 1~2세에 43.7%로 가장 높았고 이후 나이가 들수록 점차 감소하여 청소년기 이후에는 급격히 낮아졌다고 한다. 이와 유사하게 손<sup>7)</sup> 등의 연구에 따르면 총 59명의 아토피피부염 소아과 외래 환자 중 1세 미만이 64.4%로 가장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60% 이상은 1세 이전에, 30% 정도는 1~5세 사이에 증상이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다<sup>8)</sup>. 이들을 총괄하여 양방병원을 내원한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연령 분포는 유아기가 가장 많았으며 한방병원을 내원한 환자의 연령은 소아기에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아토피피부염을 주증상으로 호소하는 환아는 60.3%이었으며 타질환에 대한 부증상으로 아토피피부염을 호소한 환아는 39.7%로 나타났다. 아토피피부염이 부수적 증상인 경우에는 비염이나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을 주증상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호전도를 살펴보면 아토피피부염이 주증상인 경우 61.5%의 환아가 호전을 보였으며 타질환에 대한 부증상으로 아토피피부염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27.4%가 호전을 보였다.

아토피피부염이 발병한 후 본원에 내원하기까지 병력 기간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1개월에서 1년 미만으로 33.3%였다. 1년 이상이 25.8%였으며 1개월 미만은 11.3%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했다. 장<sup>9)</sup> 등의 연구에 따르면 아토피 발병 후 한방병원을 내원한 평균 병력 기간이  $2.28 \pm 2.63$ 년이었다고 한다.

양방 치료의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는 치료 경험이 있는 경우가 49.4%, 치료 경험이 없는 경우가 26.2%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한방병원을 내원한 환아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아토피피부염 환자 전체로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장<sup>9)</sup> 등의 연구에 따르면 22명의 환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양방 치료를 받은 경우가 한방 치료를 받은 경우보다 2배 더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양방병원에서 조사한 한방 치료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한약이나 침술을 대체 요법의 범주에 포함해 양방 치료의 보완적인 치료 방법으로 간주했다. 소아 2,920명을 대상으로 한 김<sup>10)</sup> 등의 연구에서는 아토피피부염 발생 시 소아과 치료가 34.66%, 피부과 치료가 33.94%, 한방치료가 11.6%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장<sup>11)</sup> 등의 연구에 따르면 양방 소아과를 내원하는 총 130명의 아토피피부염 외래 환자 중 67명이 한약을 복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피부과를 내원한 100명의 외래 환자를 조사한 김<sup>5)</sup>의 논문에도 따르면 40명의 환자가 한약과 침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김<sup>12)</sup> 등은 양방병원을 내원한 933명에게 설문 조사를 통해 한약은 335명이, 침은 61명이 치료 경험이 있음을 발표했다. 진<sup>1)</sup> 등의 연구에서는 피부과를 내원한 1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62명이 한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방 요법의 총 치료 기간은 1개월 미만이 44.6%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29.2%로 많았으며 세 번째로 3개월 이상이 18.4%로 나타났다. 치료 기간에 따른 호전도는 1개월 미만이 21.8%,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73.1%, 3개월 이상이 91.8%로 나타나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호전도도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sup>9)</sup> 등의 연구에 따르면 22명의 외래 환자 치료에서 치료 기간은  $4.55 \pm 2.94$ 개월이었으며 그 결과 아토피 증상이 유의하게 호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양방병원 조사의 경우 김<sup>10)</sup> 등의 연구에서는 아토피피부염 발생 시 치료 기간이 1주일 이내가 44.6%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증상이 경미한 대상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에 반해 70명의 만성 아

토피코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윤<sup>13)</sup> 등의 연구에서 치료 기간은 수개월이 40%, 수주가 35.7%, 수일이 24.3%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한방 치료를 행한 후 호전도를 살펴보면 호전이 47.9%, 변화 없음이 16.9%, 악화가 3.4%로 나타났다. 또한 내원한 외래 환자 중 한약과 함께 외용제와 입욕제 처방을 받은 환자의 비율은 67.4%에 달했고 이들 중 63.3%가 호전되었다. 한약 없이 외용제나 입욕제만 처방받은 경우는 27.0%에 달했고 이들 중 18.1%가 호전되었으며 아무것도 처방받지 않고 식생활 개선만 한 경우는 5.6%가 호전되었다. 고<sup>14)</sup> 등의 연구에 따르면 한방병원을 내원한 환자 39명중 27명(69%)의 부모들이 한약 치료가 아토피피부염의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간장과 신장에 미치는 독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남<sup>15)</sup> 등의 연구에서는 한방병원 안이비인후과부와 내원 19명의 외래 환자에 대해 6주간의 한약 치료 후 임상적 중증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조사기관이 양방병원 또는 한방병원에 따라 결과도 각각 달랐는데 이는 환자가 자신이 내원한 병원 치료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한약과 양약의 임상적 효능과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 비교할 수 있는 대규모의 임상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한의학적으로 아토피피부염은 역대 문헌에서 奶癬, 胎癬, 胎斂瘡, 濕疹, 濕瘡, 四彎風, 浸淫瘡 등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진행 양상에 따라 濕熱型, 脾虛濕盛型, 陰虛血燥型 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風熱, 血熱, 血虛, 脾胃濕熱 등을 들 수 있다.<sup>8)</sup> 약물 치료는 風熱, 血熱, 血虛, 脾胃濕熱 등의 원인에 따라 변증을 감별하여 복용시키는데<sup>16)</sup> 본원에서 가장 많이 투여하고 있는 처방은 청심연자탕으로 55.7%, 두 번째로는 선방패독탕으로 12.7%를 차지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양위탕과 보야탕가미로 둘 다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차례로 당귀음자, 육미지황탕가미, 청기산, 양신탕, 사물탕가미가 있다. 그 외 갈근해기탕, 쌍화탕, 삼령백출산, 열다한소탕, 가미소요산 등이 각각 1회씩으로 나타났다.

장<sup>9)</sup> 등의 연구에 따르면 22명의 환아에게 방풍통성산 가감방, 육미지황탕 가감방, 생혈윤부음 가감방으로 처방해 양호한 결과를 보였으며 남<sup>15)</sup> 등의 연구에서도 19명의 외래 환자에게 방풍통성산, 소풍산, 양혈거풍탕, 거풍청기산, 가감승갈탕 등을 6주 동안 처방한 후 호전을 보였다고 발표하였다. 임<sup>17)</sup> 등의 연구에 따

르면 생혈윤부음, 평위산, 온청음, 가미통성산 등의 한약을 12주간 복용한 13명의 SCORAD index는 호전을 보였으나 세라마이드 양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한약 치료가 아토피피부염 증상을 개선시킨다는 것이 임상에서 증명되고 있으나 객관적 지표로서 효과를 입증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앞으로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고<sup>18)</sup> 등의 연구에 따르면 대체요법을 사용하는 동기로 병원 치료에 대한 불만족, 부작용, 의사의 무관심 등을 불만으로 든 환자가 33.8%로 병원에 대한 불만이 환자의 치료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이<sup>19)</sup> 등의 연구에 따르면 양방 치료에 대한 거부감으로 면역력을 높여주고 질병의 자연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한 환자의 욕구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한방 치료의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 환자의 순응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치료술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한의학적 치료법을 민간요법 차원에서 한의사의 처방 없이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이를 따로 분류하고 그 효과와 적용에 관한 실질적인 근거 자료가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한방병원 소아과에서 아토피피부염으로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아토피피부염 발병 후 한방 치료를 시작한 시기, 한방 요법의 총 치료기간, 한약 복용 여부에 따른 호전도 등에 대한 조사로 의의가 있다. 앞으로 한방 치료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한의학 치료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한방 치료의 실태 조사가 더 많이 필요하며 효과와 부작용, 치료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한의학 치료에 대한 순응도를 증가시키고 한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호전시켜 아토피피부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V. 結 論

본 연구는 아토피피부염 치료를 위하여 한방병원 소아과 외래를 내원한 환자 267명의 외래 의무기록지에 기록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한방병원 소아과를 내원한 외래환자 중 아토피피부염 질환을 호소하는 소아는 267명으로 6.8%를 차지하고 이들 중 남아가 여아보다 약간 많았다.
2. 아토피피부염 외래환자 중 가장 많이 내원한 연령기는 소아(3~10세)였으며 사춘기 환자(11~19세)가 가장 적었다.
3. 아토피피부염 발병 후 내원하기까지 병력 기간에 대한 결과는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33.3%로 가장 많았고 1개월 미만이 가장 적은 11.3%로 나타났다.
4. 양방 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양방 치료 경험이 있는 경우가 49.4%였으며 양방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26.2%였다.
5. 한방 요법의 총 치료기간에 대한 조사에서 1개월 미만이 44.6%로 가장 많았으며 3개월 이상은 18.4%로 가장 낮았다. 치료 기간에 따른 호전도에서는 3개월 이상 치료한 경우 91.8%가 호전을 보였으며 1개월 미만 치료한 경우 21.8%가 호전을 보였다.
6. 한방 치료를 행한 후 호전 여부에 대한 결과에서 47.9%가 호전을, 16.9%가 변화 없음을, 그리고 3.4%가 악화로 나타났다.
7. 한약과 함께 외용제와 입욕제를 처방받아 치료한 경우는 67.4%였으며 이 경우 63.3%가 호전을 보였다.

## VI. 參 考 文 獻

1. 진현우, 장호선, 장봉석 외.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대체의학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피부과학회지. 2005;43(7):903-11.
2. 홍수중, 안강모, 이수영, 김규언. 한국 소아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 소아 알레르기 호흡기. 2008;18(1):15-25.
3. 오재원, 김규언, 편복양, 이혜란, 정지태, 홍수중, 박강서, 이수영, 송상욱, 김철봉, 안강모, 남승연, 손명현, 김우경, 이미희, 차병철, 최성연, 이소연, 이하백, 이상일, 이준성. 1995년과 2000년의 학동기와 2003년 학동전기 소아에서의 아토피피부염의 역학적 변화에 관한 전국적인 연구. 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 학회지. 2003;13(4):227-37.
4. 박영민, 박홍진, 김태운, 김정원. 피부과 외래환자에서 아토피피부염의 상대 빈도와 임상적 특징 및 검사소견에 관한 연구. 대한피부과학회지. 1999;35(1):96-106.
5. 김세희. 소아 아토피피부염에서 한의학 및 보완대체 의학의 이용. 포천중문 의과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 석사논문. 2006.
6. 권미완, 이해자, 박은정, 황우준. 아토피피부염 환자 20명에 대한 임상적 고찰과 ECP의 변화.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0;14(2):119-30.
7. 손병관, 임대현, 김정희, 박준희, 김순기. 소아과 외래환자 중 알레르기질환 환자의 통계적 관찰. 1992;2(2):29-38.
8. 김기봉, 김덕곤, 김윤희, 김장현, 민상연, 박은정, 백정환, 유선애, 이승연, 이진용, 이해자, 장규태, 채중원, 한윤정, 한재경. 한방소아청소년의학. 서울:의성당. 2010:751-57.
9. 장지혜, 이준문, 이승연. 소아 아토피피부염에 관한 임상적 고찰.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5;19(2):69-84.
10. 김영미, 이윤미. 아토피피부염 아동의 발병, 치료 및 생활습관. 기초간호자연과학회지. 2009;11(1):77-84.
11. 장은영, 정승원, 안강모, 이상일. 소아 아토피피부염에서의 대체보완요법 이용에 관한 연구. 천식 및 알레르기. 2005;25(2):110-6.
12. 김동희, 강경화, 김경원, 유일열. 소아의 아토피피부염 관리 실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2008;18(2):148-57.
13. 윤성필, 김병수, 이주홍, 이승철, 김영근.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생활 환경 및 생활 습관에 대한 연구. 대한피부과학회지. 1999;37(8):983-91.
14. 고덕재, 유한정, 이진용, 김덕곤.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한약치료의 효과, 안전성 및 유용성에 대한 임상평가.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6;20(2):129-37.
15. 남봉수, 조재훈, 김윤범, 채병윤.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임상적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00;21(4):204-15.
16. 김기봉, 민상연, 김장현. 최신 임상연구를 중심으로 한 아토피피부염에 관한 방법론적 연구.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6;20(2):151-64.
17. 임영권, 정지아, 윤철상, 허광욱, 이훈, 김호철, 김영란, 조윤희. 한약의 아토피피부염 치료에 대한 예비 임상연구.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6;20(3):129-41.
18. 고보경, 이현정, 김동재, 하석준, 하혜정, 박영민, 변대규, 김진우.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민간요법에 관한 연구. 대한피부과학회지. 2001;39(1):16-21.
19. 이현정, 이재현, 이용원, 김철우, 동현중, 박해심, 조영주, 조진희, 조상현, 편복양, 이광훈, 이혜란, 박중원, 홍천수. 알레르기 환자에서 한방 이외의 대체요법의 사용 현황에 대한 다기관 조사. 2011;80(1):68-77.